

전북대사대부고,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대상

‘대한공업교육학회 청소년 학술대회’에서도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전북대사대부고 1학년 권민, 김성준 학생(지도교사 최지현, 지도교수 전북대학교 양운석)이 2018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회로 중고등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명을 대비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주제를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전국 5개 권역의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팀이 본선대회 심사(10월 23일)를 거쳤고, 그 결과 전북대사대부고 1학년 남학생으로 구성된 B-RAIN팀이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수상작품의 전시 및 시상식은 지난 9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그날 진행된 대한공업교육학회 청소년 학술대회에서도 대상 격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그 성취감이 배가되었다.

B-RAIN팀의 아이디어인 파라디이스(Para-Dice)는 편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한 파라솔과 파라솔 단지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 NFC, 태양광, 드론, 증강현실이라는 신산업을 접목시켰다. 이 아이디어는 산업



전북대사대부고 1학년 권민, 김성준 학생이 2018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특허 출원이 계획되어 있다.

전북대사대부고 김용곤 교장은 “본교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특히 국립대 사대부고로서의 이점을 살려 전북대와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이 품과 끼를 살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 인재를 키우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하림, 저소득층 100가구에 한파 대비 난방용품 후원

익산시가 21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에서 난방이 취약한 저소득 100여가구에 1천5백만원 상당의 난방유, 전기매트, 겨울 침구류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난방용품은 (주)하림(대표 박길연)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후원하고 익산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상자를 추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난방용품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발굴된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상담 및 생활실태 파악으로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으로 선정됐다.

박길연 대표는 “이번 난방용품비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익산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연탄은행 운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난방용품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실천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시 스마트 독서동아리 '파스아리' 서울복지재단 선진지 견학

전주시 스마트 독서동아리 파스아리는 지난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시복지재단과 성미산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파스아리는 독서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복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독서학습동아리로서,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다.

주로 바깥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동불편한 환자들의 나들이를 돕고 손마사지와 어르신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무료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실내 바다 청소를 비롯 밖의 풍경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닦는 등 이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파스아리는 이 날 서울시와 민간복지영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를 견인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설립과정과 사업내용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책으로 읽었던 성미산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 스스로 일궈낸 마을공동체의 힘을 보고 느꼈다

오연화 파스아리 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의 열매들을 보고 왔다 며 ” 오늘 배운 것들을 업무현장에서 잘 녹여내 전주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구형준 진봉면장, 제23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김계시청 구형준 진봉면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16~17년 농산종합평가 전국 최초 2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18년 논 타작물 재배면적 전국 1위 달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구형준 진봉면장의 수상은 적극적인 농정시책 추진으로 김제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의 영광과 함께 전국농산분야를 선도하는 김제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구형준 진봉면장은 1983년 농업직 공채에 입사한 후 올 9월 진봉면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지난 34년간 농업, 축산, 유통 등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행정가이자 농업전문가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왔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 박해근 대표 농업인의 날 대통령상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박해근 대표가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단위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남원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으며, 초대 대표로 선출된 박해근 씨는 첫째 600억원 매출 달성을 시작으로 2017년 취급량 24.8톤, 830억원 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지 유통종합평가 우수 2회, 최우수 2회 선정 등 농산물 유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안공해 신선농산물의 상품화·규격화·집중화·농가조직화를 기초로 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 육성사업의 선봉이 되었으며, 연간 처리물량 4,820여톤, 총매출액 194억2,300만원의 사업실적을 추진해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생산 및 유통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산면 이종면씨,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사)한국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이종면 상임부회장이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안정정직 농가소득 모델 제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산면에 거주하는 이종면 상임부회장은 농산물 개발에 대비하여 쌀 전업농에만 머물지 않고 한우사육 및 다품목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사)고창군 자율방범대 상임부회장으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도 품소 실천하고 있음이 높게 평가됐다.

이종면 상임부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 분들을 대표해 받은 것으로 알고 고창군 농생명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이산면 국무총리,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5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	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시 010-9945-4113	중앙지시 010-9288-6674	남원지시 652-3896	고창지시 563-6989
삼천지시 010-2333-4791	인후지시 246-6855	김제지시 547-8855	임실지시 010-9942-2725
서신지시 272-9417	순천지시 255-2404	완주지시 246-8855	진안지시 433-3384
요지시시 010-8845-9855	팔복지시 253-6944	남원지시 652-0965	정읍지시 538-3387
	군산지시 010-6789-0208	순창지시 653-0444	장수지시 010-3882-8157
	익산지시 659-9323	부안지시 010-2425-4182	무주지시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